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3-64호 / 12월 30일

한중일 FTA 설립 논의와 전망

1. 개요

- WTO 체제내에서 지역간 무역블럭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, 한국과 중국, 일본도 2002년 11월 자유무역지대(FTA) 설립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.
-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WTO 회원국은 각종 지역무역협정에 속해 있는바, EU, NAFTA를 포함, 2001년 말 현재 공식적으로 179개에 달하는 무역블럭의 역내 무역이 전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%에 달함.
- 특히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지대 논의는 궁극적으로 아세안 10개국과 공동으로 FTA를 형성하는(10+3)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음.
- 한중일 3국은 FTA 설립을 통해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.

2. 글로벌 지역주의 발전의 새로운 경향

- FTA 형성은 시장을 확대하고,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인하고, 지역내 표준에 맞

게 국내개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.

- 최근 지역간 무역블럭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, 이들의 특징은 첫째, 유럽과 북미지역의 역내 무역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음.
 - 특히 최근 FTA 추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(EU)이나 미주자유무역지대(FTAA) 등 전세계적인 무역블럭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외부적인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.
- 둘째, 무역분야에서 환경이나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장벽이 점차 높아지면서 지역무역협의를 통해 이러한 무역장벽들을 완화하는 역할을 기대함.
 - 이는 특히 자유무역을 통한 수출확대의 필요성이 절실한 개도국들이 지역무역협약체 추진에 적극적인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.
- 셋째, 지역무역협약체 구성원이 과거처럼 동질적인 국가들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되고 있으며, 협의 내용도 광범위해지고 있음.
 - 과거 유럽연합(선진국), 아세안, 남아프리카 공동시장(개도국), NAFTA(1개 선진국+기타 개도국) 등은 구성 국가들이 동질적이고, 상품무역에 대한 협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.
 - 그러나 최근에는 서비스무역, 투자, 기술협력 등 협의 내용도 광범위해지고 다양한 보완관계를 이루는 구성원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음.

3.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 구상

- 동아시아 지역은 전세계 제조업의 중심기지이면서 미국과 유럽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반면, 지역내 무역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음.

- 이에따라 우선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다자무역협의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쌍방무역협의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시켜, 지역내 내부시장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.

□ 최근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적극적인 지역시장 확대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경제 협력의 진전을 촉진시키고 있음.

- 중국은 2000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중국-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지대 설립 가능성을 제기한 이후 2002년 11월 “중국-아세안 경제협력협약”에 조인하면서 지역경제협약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.

- 일본은 2002년 1월 싱가포르 “경제협력 동반자관계협정”을 조인하고 11월 “10+3”정상회의 기간에 “전면적 합작동반자관계”와 자유무역지대 준비에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였음.

- 한국은 2002년 10월 칠레와 FTA 협의를 체결하고, 싱가포르와 FTA 논의를 진행중이며, 동시에 아세안과의 FTA도 추진하고 있음.

□ 아세안과 한중일이 결합된 FTA 설립을 위해서는 중심축이 될 한국과 중국, 일본 3국의 경제무역에 관한 협력이 관건인데, 이들 국가간에 무역과 투자 관련 이해관계의 조정이 쉽지 않음.

- 경제규모면에서 한중일 3국은 총인구가 15억 명, GDP 규모는 일본이 세계 2위, 중국이 6위, 한국이 12위를 차지하고 있음.

○ 3국의 GDP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%, 전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.9%, 전세계 서비스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.4%에 달하며, 전세계 외환보유액의 40%를 보유하고 있음.

- 한중일 3국의 수출에서 유럽과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5%, 36%, 46%에 달하는 반면, 이들 3국간의 역내무역 비중은 2001년 21%에

그침.

4. 한중일 FTA 설립 전망과 과제

- 장기적으로 한중일 FTA 설립은 이들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.
 - 첫째, 3국간의 무역장벽이 사라지면서 지역내 시장규모가 확대되고, 이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임.
 - 둘째, FTA 설립은 3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경제구조조정 비용을 상호보완관계를 통해 줄여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임.
 - 셋째, 3국간 경제협력이 강화되면 한국의 통일문제, 중일 영토분쟁 등과 같은 지역안보 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짐.
 - 넷째, 3국간 경제연합의 구축은 다변화된 무역체제 속에서 유럽이나 북미 등의 여타 무역블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담보할 수 있음.
- FTA 설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3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의기구와 제도를 창설하고, 무역자유화와 경제협력을 촉진하여 모든 국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WIN-WIN 전략을 모색해야 함.(***)